『화사집』에 나타난 원시적 상상력 연구

양소영*

〈차 례〉

1. 서 론
2. '인간'과 '동물'의 동일성과 원시의 생명력 추구
3. '붉은색'의 원초적인 감각과 금기의 초월
4. '여성'을 통한 원시 자연의 평화로운 마음과 구원의 사유
5. 결 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화사집』에 나타난 동물, 색채, 여성을 통해 원시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화사집』에 나타난 원시성은 시인이 여러 원초적 대상들을 중심으로 당시 현실에 대항해 과거로 갈수록 현실이 지닌 문제점을 이해하며 자신이 내면세계를 정립하는 과정이다. 특히, 「화사」의 뱀은 양면성을 지닌 존재로, 이런 점을 지닌 대상을 화자가 부정해 보지만 오히려 화자는 그 대상과 완전한 합체를 추구한다. 이는 원시 자연 상태처럼 인간과 동물이 경계 없음을 의미한다. 화사에 내재된 자연의

* 충북대학교

힘은 화자가 동일시를 통해 원시 자연의 충만한 생명력을 경험하게 한다. 그 결과, 그는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이 지닌 고통에서 해방된다.

『화사집』에는 붉은색 이미지가 많이 나타난다. 『화사집』의 붉은색은 사유하는 자아와 연관되며 순수한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 이는 더욱 원시적인 상황을 만들며 이 속에서 자아는 순수하게 되며 어떤 갈등을 형성하거나 도덕성의 문제를 초월하게 한다. 「문둥이」의 문둥이는 자신의 재생을 위해 아기를 먹는 상황을 만든다. 바로 그는 그때 꽃처럼 붉은 울음을 울고, 이 붉은색은 원시적 상황을 만들며 화자에게 순수한 자아를 만든다. 순수한 자아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게 하며 선악개념도 허물어버린다. 그 결과, 원시적 상황 속에 문둥이가 존재하며, 그의 아이 먹은 행위는 선악개념을 넘어서게 하며 도덕적인 상황과 별개가 된다.

『화사집』에는 화자를 구원하는 여인들이 나타난다. 「수대동시」에서 화자는 현재 부재한 금녀와 금녀의 동생을 통해 영원성을 추구한다. 이는 자신의 존재론적 상황과도 연관된다. 그녀들은 미지의 존재처럼 자연과 합일된 대상들이다. 그런 그녀들은 화자에게 원시인의 평화로운 마음을 만든다. 원시 자연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자유로운 순수한 감성의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수대동'은 화자와 여인들을 통해 모든 것은 초월하게 하는 원시적인 공간으로 더욱 화자에게 평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얻게 한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당시 여러 부자유로운 상황 속에 존재하는 시인에게 구원의 대상이 된다.

주제어: 동물, 원시적 생명력, 원초적 감각, 여성, 구원의 사유

1. 서 론

『화사집』(1941)은 『시인부락』 2호(1936. 12)에 발표한 시 「화사」의 제목을 딴 시집의 이름으로, 미당이 첫 번째로 발간한 시집이다.[1] 『화사집』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그의 초기시를 포함해서 심리적이고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살펴보거나[2], 언어적인 방법[3]과 전기적[4]이고, 철학적[5]인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졌다. 이는 그만큼 『화사집』이 다양한 시 세계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화사집』은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으며 세기말적 악마성과 토속적인 원시성의 조화를 이룬 작품집으로 평가 받고 있다.[6]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사집』에 나타난 관능적이고 원초적이며, 육체적인 부분과 원죄의식은 서양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

1) 박민영, 「뱀과 달의 상상력-서정주 시 「화사」와 「동천」 연구」, 『한국시학연구』35호, 2012, 12, 104쪽.

2) 류동현, 「『화사집』의 심층 심리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00.
전미정, 「한국 현대시의 에로티시즘 연구: 서정주, 오장환, 송욱, 전봉건의 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1999.
최현식, 「서정주와 영원성의 시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2003.
김수이, 「서정주 시의 변천 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1997.

3) 윤재웅, 「서정주 『화사집』의 문체 혼종 양상에 대하여」, 『한국문학연구』 44호, 2013. 6.
박혜숙,「백석과 서정주의 서술시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2008.
이희중, 「『화사집』의 다중진술 연구」, 『한국언어문학』50호, 2003. 5.

4) 오용기, 「서정주 시와 한- 『화사집』을 중심으로」, 『국어국문』35호, 2000.1
이남호, 「예술가의 자아인식 - 『화사집』 시절의 미당」, 『한국시학연구』28호, 2010. 8.

5) 박성현, 「『화사집』에 나타난 도시 담론 연구」, 『겨레어문학』38호, 2007.
박민영, 「뱀과 달의 상상력-서정주 시 「화사」와 「동천」 연구」, 『한국시학연구』35호, 2012.12
윤은경, 「서정주 초기시의 낭만성과 '도'의 상상력- 『화사집』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45호, 2011.
윤재웅, 「『화사집』 자세히 읽기 1」, 『한국문학연구』22호, 2000. 3

6) 박민영, 앞의 논문, 104쪽.

볼 수 있다. 게다가 미당이 1936년 '생명파'라 불리는『시인부락』에 참여하여 상실되어가던 인간의 원형을 복원시켰던 점을 생각해 볼 때[7],『화사집』의 여러 서양의 문화는 젊은 지식인에게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적 분투이기도 하다.[8] 다시 말하면,『화사집』은 1930년대 식민지 속에서 젊은 지식인이 여러 갈등과 시련을 강렬한 생명의 정신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특히,『화사집』의 붉은색의 이미지, 육체적이며 관능적인 부분과 동물의 표상은 원초적인 상상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미당은『화사집』이후의 시집에서 전통주의 혹은 동양사상을 펼치며,『화사집』의 강렬하고 원초적인 생명력의 이미지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 시계 전반을 볼 때, 미당 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 탐구와 영원성의 지향이다.[9] 그렇다면『화사집』의 여러 원초적인 것들이 지닌 상징이나 이미지들, 그 사이에 펼쳐진 여러 사건들은 그 이후 시집에 나타난 동양사상과 이질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10] 오히려『화사집』에 나타난 원초적인 상상력은 이후 시집에 나타난 전통주의나 동양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점에서『화사집』을 지배하고 있는 원시적인 상상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연구 중에서『화사집』의 원시성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당이 표현하는 '미적 수사'나 '감정어'들을 원시적 신화의 의미로 살펴보거나[11]『화사집』의 육체성과 관능성을 원초적인 생명력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다.[12]

---

7) 박성현, 앞의 논문, 232쪽.
8) 남기혁,「서정주의 동양인식과 친일의 논리」,『국제어문』37, 2006, 99-100쪽.
9) 윤재웅,『미당 서정주』, 태학사, 1998. 22쪽.
10) 남기혁, 앞의 논문, 102쪽.
11) 이경수,「서정주 초기시에 나타난 감정어의 활용과 그 의미」,『한국문학연구』50호, 2016
12) 김화영,「한국인의 미의식」,『미당연구』, 민음사, 1994.

이처럼 『화사집』의 원시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한편으로 원시성에 대해 일정 부분만 다루고 있고 본격적인 연구가 없어 아쉬움이 든다. 이런 점을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화사집』의 원시성을 루소의 원시주의 이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화사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은 『화사집』에 나타난 여성, 동물, 색채를 중심으로 원시성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화사집』에 나타난 원시성은 시인이 여러 원초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당시 현실에 반대 작용으로 더 고대 사회로 갈수록 현실이 지닌 문제점을 이해하게 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정립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선, 『화사집』에는 원시적인 대상들이 풍부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브", "크레오파투라"나 "순네", "숙", "연순이", "유나" 등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베암", "산되야지", "닭" 등의 동물들과 "붉은 울음", "붉은 꽃밭색" 등의 붉은 색채들도 원초적인 생명력의 상태를 나타낸다. 물론 그동안 『화사집』의 동물, 여인, 색채의 이미지들, 혹은 상징들은 다각도록 연구되어 왔다.[13] 하지만 이 대상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화사집』의 원시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다. 이것은 미당의 시 세계의 출발점과 시 세계의 변화가 되는 계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화사집』 이후 시집들에 나타난 동양 사상의 정신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사집』의 여성, 동물, 색채들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며, 이들이 어떻게 원시성으로 표출되는가는 『화사집』의 특수성을 나타내 줄 것이다.

---

13) 박민영, 앞의 논문.
천이두, 「지옥과 열반」, 『미당연구』, 민음사, 1994.
김재홍, 「미당 서정주」, 『미당연구』, 민음사, 1994.
김화영, 앞의 책, 1994.

'원시적'에 해당되는 'primitive'는 라틴어 'Primus'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개', '단순', '소박', '미분화', '초보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일반적으로 저급한 수준의 상태를 일컫는 용어로서 원시적 개념은 계몽주의 철학이후 원시문화를 지칭하는 데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4]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에서 원시적인 사유와 삶들을 포틀래치나 쿨라 같은 증여적 교환 방식 혹은 사물의 증여적 순환을 통해 보여주었고 그것은 유럽인들의 배타적인 교환방식과 매우 달랐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적 근대사회에서 누릴 수 없는 삶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었다.[15]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진보의 가치를 신봉하는 독선적인 유럽 사회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기원인 구조적 사회의 특권의식을 통박했고, 그는 인간의 초기 내지는 단순한 상태에서 풍족한 삶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원시주의를 옹호하게 된다.[16] 그는 오래된 과거로 갈수록 당시 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루소에 의하면, 원시주의는 자연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에선 일체의 지배 관계가 없는 순수하고 독립된 상화이고, 선량한 존재만 있다고 주장한다.[17] 특히, 원시 자연 상태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동물은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인간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인간 역시 동물로의 변신이 가능하다.[18] 이런 원시인들의 감각은 지향하는 바가 있고, 이것은 공간과 시간 속으로 퍼져서 본래의 연관성을 잃어버린 듯이 보이나 상실된 연관성을 회복시키게 되며, 원시인들은 현실세계의

14) 최재란, 유숙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에 관한 연구」, 『科學論集』, 1995, 85쪽
15) 신범순, 「이상의 원시주의와 부채꼴 인간의 의미」,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6, 겨울, 91쪽.
16) 최재란 외, 앞의 논문, 84쪽.
17) 조규갑, 「이상 문학의 원시주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08, 9쪽.
18)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곰에서 왕으로』, 동아시아, 2003, 54쪽.

양립이 불가능해진 곳에 공생의 가능성을 찾는다.[19] 이런 점에 볼 때, 미당은 동물과 동일시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이분법적 세계관의 규정을 없애버린다. 즉, 그의 동물과 동일시는 원시적 생명력의 충만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시인은 당시 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이해하며 내면의 고통과 시련을 치유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20]

또한 원시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이란 선악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이고 선악개념이 불가능하다.[21]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서로 아무런 교류도 없었고, 허영심도 신중함도 존경도 경멸도 모르고, 그들은 남의 것과 자기 것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으므로 선과 악이 불분명했다.[22] 선과 악의 초월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천진난

---

19)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30쪽.

20) 본고는 백석 시에 나타난 동물을 원시성의 이론으로 살펴보았다.(양소영, 「백석 시에 나타난 동물과 원시적 감성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64호, 2016. 2) 백석 시에도 동물과 동일시가 나타났고, 이런 점은 원시성의 키워드로 이해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동물을 통해 원시성의 감성을 도출했다. 이와는 달리 『화사집』에도 동물이 존재하며 이를 원시성의 이론으로 살펴보았지만, 『화사집』의 동물과 동일시는 생명력을 추구에 중점을 두었다.

21) 장 자크 루소, 주경복 고봉만 역, 『인간 불평등의 기원』, 책세상, 2003, 150-151쪽.

22) 위의 책, 84쪽.
자연 상태의 인간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개념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해서 사회적 질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상호간에 항구적인 전쟁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홉스의 성악설에 루소는 정면으로 반대한다. 생각하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악개념, 미덕과 악덕의 개념 이전에 있기 때문에 악하지 않으며 악해야 할 이유도 없다.(위의 책, 151쪽.) 이렇게 예술가들이 동물상징을 통해서 원초적인 힘들을 회복하고자 하며, 문병의 질곡을 비판하는 것을 고대의 제사장적 행위에 비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많은 제례에서 토템 동물과 희생 동물은 제사장(무당)이 하늘과 교통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고대의 禮器에 그려진 동물들과 솥에 새겨진 동물은 모두 자연의 신성한 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한 상징적 기호였던 것이다. 그 신성한 동물의 피와 살이 자연의 신령들에게 바쳐지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 다시 자연과

만한 세계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자아를 지닌 원시인의 감각은 대립과 갈등, 모순의 관계를 가지기 보단 이항 대립적인 모든 관계를 포괄한다.[23] 예컨대 자아와 세계의 구별이 없는 원시인의 감각은 선과 악의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것을 허물어버린다. 그런 점에서 『화사집』의 붉은색은 시인에게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 즉, 붉은색의 원초적인 감각은 시적 화자에게 순수한 자아를 만들며 선과 악의 개념을 초월하게 한다. 그러므로 『화사집』에 나타난 금기의 초월은 갈등도 없고 선악개념도 넘어선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자연 속에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원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넓은 공간에서 홀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규범과 구속으로 자유로운 존재이고 자족적인 삶을 누리게 된다.[24] 특히, 원시 자연 상태에서는 악덕을 모르기 때문에 정념이 평정을 유지하게 된다.[25] 『화사집』의 화자는 여인들을 통해 원시 자연 상태처럼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얻는다. 이때, 원시인의 마음은 인간 본성에 대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26] 『화사집』에서 화자가 여인들을 통해 삶과 죽음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초월은 시인에게 성숙한 감성이고 이는 그를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준다. 즉, 『화사집』의 여인들은 시인에게 삶과 죽음, 성과 속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게 만들고 그는 자아와 세계의 차이를 허물어버리는 원시인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

인간을 하나가 되었다. (신범순, 『바다의 치맛자락』, 문학동네, 2006, 66쪽) 이런 점에서 미당도 동물 상징을 통해서 더욱 원초적인 힘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23) 김정수, 「이상과 백석 문학에 나타난 아동미학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 2010, 18~19쪽.

24) 장 자크 루소, 앞의 책, 152쪽.

25) 위의 책, 152쪽.

26) 마이클 벨, 김성곤 역, 『원시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9쪽.

다. 이런 원시인의 평화로운 마음은 미당이 당시 현실에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구원의 사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화사집』의 원시성은 시인이 원초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원시 사회로 갈수록 당시 현실의 부조리를 이해하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정립하게 과정을 의미한다.

2. '인간'과 '동물'의 동일성과 원시의 생명력 추구

『화사집』에는 뱀, 산돼지, 노루, 닭, 수캐, 부엉이, 개구리 등 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특히, 시인은 "우슴 웃는 짐생, 짐생 속으로"(「정오의 언덕에서」)를 외치며, 동물을 통해 원초적 생명력을 추구한다. 원시 자연 상태에는 인간과 동물은 완전한 대칭성이 실현되며 동물이 인간처럼 말을 하고 인간도 원하면 언제든지 동물로 변할 수 있다.[27] 미당은 동물과 동일시를 통해 원시적 생명력의 충만함을 만들며 이를 통해 당시 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의 고통과 시련을 치유한다. 아감벤은 『열림』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의 구별을 초월하고자 했다. 그는 휴머니즘의 '인류학적 기계'의 역사를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분리의 신비'의 역사라고 쓰며, 아감벤은 인간 본성 개념은 언제나 문제적이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용어가 서양의 전통에서 엄 밀하게 정의된 것은 없지만 구약성서에서 근대 유전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분절되고 분리되어' 왔기 때문이고 특히 그에 의하면 어떠한 생기론도 동물 없이는 사유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28] 동물에는 원초적인 힘이 내포되어 있고, 시인은 당시 현실을 비판하는 하며 동물상징을 통해 잃어버린 생명력을 추구하고자 했다.

---

27)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대칭성의 인류학』, 동아시아, 2003, 37쪽.
28) 맛떼오 파스퀴넬리, 서창현 역, 『동물혼』, 갈무리, 2013, 73-74쪽

麝香 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운 베암……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여났기에, 저리도 징그라운 몸둥아리냐.
꽃다님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든 達辯의 혓바닥이
소리잃은 채 낼룽그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눌이다……물어뜯어라. 원통히무러뜯어.
다라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 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 芳草 ㅅ 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石油 먹은듯…석유 먹은듯… 가쁜 숨결이야
바눌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크레오파투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는 고흔 입술이다… 슴여라! 베암
우리 순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흔 입설… 슴여라! 베암

「花蛇」

「화사」는 뱀에 나타난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징그러움의 양면성을 통해 원초적인 생명력을 나타낸 작품이다. 이런 점은 "사향 박하의 뒤안길", "아름다운 베암"이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 즉, 뒤안길에 나타난 뱀은 사람이 시선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꽃다님"처럼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 뱀은 아름다운 빛깔과 무늬를 지녔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뱀을 보고 싶지만 뱀은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운명을 지녔다. 이런 운명은 당시 현실을 살아야만 하는 시인 자신인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현실에서 "선과 악을, 미와 추, 진실과 허위의 양면"[29]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지닌 양면성에 대해 "물어 뜯어라. 원통히 무러뜯어. 다라나거라!" 외치며 강한 부정을 표현한다. 이는 곧 뱀을 부

29) 김재홍, 앞의 책, 168쪽.

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뱀에 대한 거부감의 극치는 "다라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돌팔매를 쏘"는 상황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오히려 화자는 "석유먹은 듯" 가쁜 숨을 내쉬며 "저놈을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는 뱀의 양면성을 화자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 이런 운명은 원시 자연 상태의 삶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원시 자연 상태의 삶은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가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지지 않았고, 동물들의 삶을 함부로 빼앗거나 가축으로 만들어 小兒化하지도 않았다.[30] 특히, 원시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속박에서 전적으로 자유롭고 강자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고 나와 타인의 경계에서 자유롭다.[31] 이런 점에서 화자는 모순의 대상인 뱀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뱀의 뒤를 따르며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결과 그는 뱀을 통해 원시 자연의 충만한 생명력을 얻게 된다. 원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무한히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홀로 떨어져 살며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이 되거나 다툴 필요도 없이 예속되지 않은 존재가 된다.[32] 그래서 화자는 "돌팔매를 쏘며" 뱀을 공격하기보다 그것의 "뒤를 따르"게 되고 더욱 화자는 "…바눌에 꼬여 두를 까부다."처럼 뱀과 일치하고 싶은 욕망까지 보여준다.[33] 화자의 욕망은 원시 자연 상태처럼 인간과 동물간의 경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원시 자연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어떤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변화가 쉽다.[34] 즉, 원시 자연 상태에서 동물은 인간과 경계 없고 이런 점은 시인으로 하여

30)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의 최고의 철학』, 29쪽.
31) 장 자크 루소, 앞의 책, 152쪽.
32) 장 자크 루소, 앞의 책, 152쪽.
33) 박민영, 앞의 논문, 117쪽.
34) 나카자와 신이치, 『대칭성의 인류학』, 34쪽.

금 원시적인 생명력을 느끼게 하며 당시 현실에서 경험했던 여러 시련과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그 결과 화자에게 뱀은 부정의 대상을 넘어서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의 긍정적인 대상이 된다. 이는 자신이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마지막 화자는 "슴여라 베암"이라 외친다. 이는 주체와 대상과의 완벽하게 하나가 되기 위한 주술이기도 하다. 이런 동일시의 주술은 당시 현실의 여러 문제로 인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황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세계와의 공존을 통해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부조리를 원시 자연의 사고의 힘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억압된 욕망과 갈등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 즉, '스며라 배암'에 대한 주술은 화자가 뱀과의 일치를 통해 원초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사의 붉은 입술'은 무언가를 물어뜯으며 상처를 주고 게다가 강력한 독까지 있지만 이는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힘의 절정을 보여준다. 화사의 자연의 힘은 화자에게 원시적 생명력의 충만한 자연 상태를 경험하게 하며, 그는 짧은 순간이라도 자신이 지닌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동일성은 주체로서 자아가 타인들 또는 외부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립,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가 다른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의 물음과 연결되며, 특히 자아의 재발견은 개인적 동일성의 문제이기도 하다.[35] 그러므로 시인은 동물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재정립하고 원시적 생명력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그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

35)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393쪽,

저놈은 대체 무슨 심술로 한밤중만되면
차저와서는 꿍꿍앓고 있는것일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나와 나의 안해될사람에게도
분명히 저놈은 무슨 불평을 품고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의 詩를**, 그다음에는 **나의 表情을**, 흐트러진**머리털**한 가닥까지,
…낮에도 저놈은 엿보고있었기에
멀리멀리 幽暗의 그늘, 외음은 다만 수상한 呪符
핏빛 저승의 무거운 물결이 그의 쪽지를 다적시어도
감지못하는 눈은 하눌로, 부흥…부흥…**부흥아 너는**
오래전부터 내 머릿속 暗夜에 둥그란 집을 짓고 사렀다.

「부흥이」

자는 **닭**을 나는 어떻게해 사랑했든가

모래속에서 이러난목아지로
새벽에 **우리**, 기쁨에 **鳴咽하니**
새로자라난 齒가 모다떨려.

감물듸린빛으로 지터만가는
내 裸體의 삿삿이……
수슬 수슬 날개털디리우고 닭이 우스면

結義兄弟가치 誼좋게 우리는
하눌하눌 國旗만양 머리에 달고
地歸千年의 正午를 울자.

「雄鷄上」 부분

「부흥이」는 부엉이라는 동물을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세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부흥아 너는 오래전부터 내 머릿속 暗夜에 둥그란 집을 짓고 사렀다."에서 시적 화자의 머릿 속에는 부엉이가 존재하며, 내 머리 속에 집을 짓고 사는 부엉이는 주체와 타자

의 완벽한 동일시를 보여준다. 그런데 부엉이는 "심술로 한밤중만 되면, 차저와서는 꿍꿍앓고" 있고, 게다가 화자의 가족에게까지 "불평을 품고 있"다. 예컨대 부엉이는 화자 자신으로, 화자는 현재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때 "심술"과 "불평"은 "나의 시", "나의 표정", 나의 "머리털"로 화자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며,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 상태를 의미한다. 즉, 화자는 내면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동정의 대상이다. 화자는 당시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 상실감과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화자가 지닌 결핍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원시 자연 상태에서 동정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마음속으로 하나가 되면 될수록 더욱 강해진다.[36] 이런 점에서, 화자는 부엉이와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의 상태를 더욱 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핏빛 저승의 무거운물결이 그의 쭉지를 다적시어도 감지못하는 눈은 하눌로"에서 화자는 부엉이처럼 울며 세계에 대항하며 몸무림치고 있다. 예컨대, 시인은 자연과 공존방식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런 모습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한다는 에코로지와는 다른 차원의 전체성, 즉 서로의 존재를 유동적으로 왕래할 수 있다는 차원의 '전체성'의 사고에서 가능한 것이다.[37] 예컨대, 부엉이와 화자는 원시 자연 상태처럼 동물과 인간이 경계가 없고 이런 점은 화자에게 더욱 원시 자연의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 결과 화자는 부엉이처럼 울며 여러 갈등과 시련을 초월하고자 한다.

---

36) 장 자크 루소, 앞의 책, 82쪽.

37) 나카자와 신이치, 『곰에서 왕으로』, 112~113쪽. 에콜로지는 인간은 인간, 곰은 곰, 그 위에서 모두 모여 서로 공생하고 있다는 의미의 '전체성'이지만 대칭성 사회의 사람들은 인간과 곰(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유동적으로 왕래할 수 유동적인 생명의 레벨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전체성'을 사고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나카자와 신이치, 『곰에서 왕으로』, 112-113쪽)

「웅계上」에서 시적 화자와 닭은 "우리"라는 표현처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동일시는 화자를 "기쁨에 명인"하게 하며 "새로자라난 齒가 모다떨"리게 만든다. 더욱 화자와 닭의 동일시는 "결의형제가치"란 표현에서 서로의 유대감이 절정에 이른다. 이런 유대감은 "하눌하눌 국기만양 머리에 달고 지귀천년의 정오를 울자."에서 자긍심을 이끌며 생명력을 유지시킨다. 즉, 동물과 동일시는 원시적 생명력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시인은 당시 현실의 여러 문제점을 이해하며 내면의 고통과 시련을 치유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킨다.

3. '붉은색'의 원초적인 감각과 금기의 초월

『화사집』에는 붉은색의 시각적 이미지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런 붉은색은 그의 시에서 "붉은 꽃밭색"(「대낮」), "붉고 붉은 눈물"(「서름의 강」), "붉은 울음", "코피", "피묻은 입마춤", "멫 방울의 피", "닭의벼슬", "피에 적은 국토", "불게 타오르는 고흔 입술", "붉은옷" 등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특히, 『화사집』의 붉은색은 "피와 불꽃의 강렬한 협주곡으로, 색으로부터 생명을 발견하고 자각한 최초의 시집"[38]이라 평가 받아왔다. 이런 맥락에서 "웅계의 생간으로 매워오는 두개골에/맨드램이만한 벼슬이 하나 그윽히 솟아"(「웅계 下」)를 보면 "생간"과 '맨드라미처럼 솟아 있는 닭의 벼슬'이 부여하는 붉은색은 역동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며, 특히, 붉은색의 감각은 화자와 주변 상황을 갈등과 대립이 없는 원초적인 상황을 만든다. 예컨대, 붉은색의 원초적인 감각은 도덕적인 악함과 선함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게 한다. 데카르트는 〈본래 직접적으

38) 윤재웅, 『미당 서정주』, 246쪽.

로 감각되는 것은 오직 내 의식에 제공된 바 저들 모든 성질의 관념〉뿐이다고 하며 감각은 외물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유하는 자아와의 관계에서 관념으로 다루 있고, 이 자아는 정신, 영혼, 오성, 이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체없이 존재하는 순수 자아'가 된다.[39] 예컨대, 『화사집』의 붉은색이 지닌 역동적인 에너지는 주변의 상황을 원시적으로 만들며 이곳에서 화자는 순수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 귀기울려도 있는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우에 무수한 밤이 往來하나
> **길은 恒時 어데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
> 이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 **우름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 속에 숨기어가지고… 너는
>
> 「바다」 부분

> 해와 하늘빛이
> 문둥이는 서러워
> **보리밭에 달 뜨면**
> **애기 하나 먹고**
>
> **꽃처럼 붉은 우름을 밤새 우렀다.**
>
> 「문둥이」

「바다」는 시적 화자의 불안정한 내면 심리를 표현한 작품이다. 「바다」에서 "길은 항시 어데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라는 표현은 식민지 사회에서 겪는 지식인의 갈등과 불안을 의미하며 당시 어두운 현실을 단적으로 제시해준다. 특히, "우름에 젖은 얼굴"은 시적 화자가 사회로부터 겪은 심리적 불안에 대한 예민한

39) 한전숙, 『감각과 신체』, 민음사, 1984, 39쪽.

반응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히려 불안은 존재자와 그들로 가득 찬 세계에서 자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는 세계 내에서 실존하면서 자기 존재를 직면하게 된다.[40] 예컨대, 이런 불안감은 시인에게 세계를 향해 폭넓은 감각을 만들어 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립하게 한다.

「문둥이」에서 문둥이는 자신의 병을 고치지 위해 아기 하나 먹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애기 먹는 문둥이의 행동을 원죄의식이라고 설명한다.[41] 예컨대, 문둥이가 재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애기 하나 먹는 것으로 이는 식인이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레비스트로스에 의하면, 식인 풍습은 세계 나라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고대 의학에서 치유 수단으로 생각해 왔고 식인 풍습은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자기 종족 중심주의를 의미한다.[42] 이렇듯 식인의 풍습은 원시 자연 상태와 문명 간의 구별을 보여준다. 특히, 문둥이는 아무도 없는 달밤의 보리밭에 병든 자신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 식인을 행하고, 바로 그때 "꽃처럼 붉음 우름"을 운다. '붉은 울음소리'의 붉은색은 어두운 검은 하늘의 달빛과 더욱 대비적인 상황을 만들며, 이 상황은 능동과 수동의 두 영역으로, 상승된 각각의 극이 만난 것으로 자극적이고 고양된 느낌을 준다.[43] 즉, '붉은색'의 강렬한 이미지는 문둥이가 처한 보리밭

---

40) 박근배, 「하이데거의 공포와 불안 개념에 대한 연구 : 자기 존재 상실에서 자기 존재 확인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2012. 47쪽.

41) 박성현, 앞의 논문, 249쪽.

42)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강주헌 역, 『우리는 모두 식인종이다』, 아르테, 2015, 127~128쪽. (식인 풍습은 기근 시대에 식량을 보충하는 수단이나 인간의 살에 대한 욕구로서 식량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죄인의 징벌이나 적에 대한 복수로서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다. 또 고인의 성품을 물려받거나 반대로 고인의 영혼을 멀리 보내기 위한 마법적인 성격, 혹은 종교의식, 장례와 제사, 성년식과 관련되거나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의 성격을 띨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 앞의 책, 127쪽)

43) 괴테, 장희창 역, 『색채론』, 민음사, 2003, 262쪽.

을 온통 붉은색으로 지배한다. '붉은색'은 자신을 떠받쳐준 어떤 색채의 빛 속에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하며, 어두움과 밝음의 종합을 이루며, 총체적인 빛을 만들고, 이런 총체적 빛은 대상을 차츰차츰 감싸들면서 대상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며 내밀한 의미를 형성한다.[44] 그러므로 "꽃처럼 붉은 우름"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고 주변 상황을 결합시킨다. 「문둥이」의 붉은색은 화자의 내면과 자연을 연결시키게 되며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합 가능한 근원적 통일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45] 그렇다면 문둥이가 "붉은 우름을 밤새 우렀다."고 할 때, 이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고자하는 의지가 표현되었다고 본다. 즉, 원시시대의 색채는 악마에게 대항하고 귀신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보며,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것들 가운데서 보석이나 희귀한 돌처럼 그 색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는 절대적인 힘이 들어 있다.[46] 예컨대, 원시적인 관점에서 붉은색은 문둥이에게 강력한 의지를 키워주며, 주변의 상황을 더욱 원시적으로 만든다. 이런 원시적 상황에서 선과 악의 경계는 초월하게 된다. 왜냐하면, 감각은 여러 영역 속에서 서로 다른 범주들의 여러 층에 위치하며, 하나의 유일하고 동일한 감각의 여러 다른 범주들이 있고, 감각은 응결된 감각처럼 종합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47] 예컨대 「문둥이」의 붉은색은 다른 감각을 총체적으로 만들며 특히, 사유하는 자아와도 관계를 맺는다. 이때의 자아는 순수한 자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 자연 상태의 인간이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존재이며 선악개

---

44) 바슐라르, 정영란 역, 『공기와 꿈』, 민음사, 1995, 238-241쪽.
45) 괴테, 앞의 책, 16쪽.
46) 파버 · 비렌 지음, 김화중 역, 『색채 심리』, 동국출판사, 1996, 55쪽.
47) 들뢰즈, 하태완 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1995, 66쪽.

념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로 원시 자연 상태는 평화롭고 무사태평할 수 있다.[48] 즉, 문둥이가 아이 하나 먹은 행위는 금기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의 붉은색의 울음은 자아와 세계의 분리 이전인 원초적 상황에 놓이게 만든다. 원시 자연 상태에서 자아는 순수한 자아로 존재하며 이 상황은 금기도 초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문둥이가 자신의 삶을 위해 근본적인 도덕마저 파괴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의 행동은 도덕적인 상황과 별개의 문제가 된다.

따서 먹으면 자는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새에 길이 있어.
핫슈 먹은듯 취해 나자빠진
능구렝이같은 등어릿길로
님을 다라나며 나를 부르고…

强한 향기로 **흐르는 코피**
두손에 받으며 나는 쫓느니

밤처럼 고요한 끌른 대낮에
우리 둘이는 웬몸이 달어…

「대낮」

「대낮」은 젊은 남녀의 성적 욕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위의 시에서 "따서 먹으면 자는 듯이 죽는다는 붉은 꽃밭"은 붉은색의 선명함이 시 전반을 지배한다. 물론, 붉은 꽃밭은 꽃을 따서 먹으며 죽을 수도 있는 공포의 공간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꽃밭은 생명력이 넘친다. 이유는 붉은색이 주는 선명한 색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붉은색에서 우리는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고 붉은색은 지칠 줄 모르는 심장 박동에 의해 공급되는 혈액의 왕성한 활동을

48) 루소, 앞의 책, 150-151쪽.

의미한다.[49] 이런 점에서 이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기 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붉은색은 아름다움과도 통할 수 있고, 붉은색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으며, 매력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이는 원초적인 의식과도 관련된다.[50] 즉, 「대낮」의 "붉은 꽃밭"은 생명력과 동시에 매혹적인 힘을 지니며 이런 점은 "붉은 꽃밭"을 더욱 원시적인 장소로 만들어 놓는다.

특히, "붉은 꽃밭"의 향기는 시적 화자를 "코피"까지 흐르게 한다. 코피는 몸 생명을 형성하는 물화되어 나타나는 형상 중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피가 없는 생명이란 이미 몸 생명이 아니다.[51] 이런 점에서 화자는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코피를 "두손에 받으며" 님을 쫓으며, "밤처럼 고요한 끌른 대낮"을 만든다. 즉, "우리 둘이는 웬몸이 달어…"처럼 대낮의 젊은 남녀는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상황에 있다. 이런 점은 당시 현실에선 금기시 되지만 붉은색에 도취된 화자들은 금기도 초월하며 원시 자연 상태의 삶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내게 된다. 예컨대, 원시인들에게 자연이 심어준 성욕을 따르며 자기가 자연에서 얻지 못하는 취향은 따르지 않고, 그들은 각자 조용히 자연적인 충동을 기다리며, 열광하기보다는 차라리 쾌감을 느끼며, 취사선택을 하지 않고 거기에 몸을 맡기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필요만을 느꼈고 눈으로 보아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것만 쳐다본다.[52] 즉, 화자는 붉은색으로 인해 순수한 자아를 얻게 되며, 선과 악의 개념도 초월하게 된

49) 알베르트 수스만, 서영숙 역, 『영혼을 깨우는 12가지 감각』, 2007, 섬돌, 184쪽.
50) 하랄드 브램, 이재만 역, 『색의 힘』, 이화여대 색채디자인연구소, 2010, 29쪽.
51) 윤재웅, 앞의 책, 241~242쪽.
52) 루소, 앞의 책, 86~89쪽.

다. 대낮의 젊은 남녀의 욕망은 금기가 될 수 있으나, 원시적 관점에서 이들을 볼 때 윤리적인 타당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붉은 꽃밭"은 원초적인 장소가 되며 이 공간에서 인간들은 원시인처럼 일도 언어도 거처도 없고 싸움도 교제도 없으며 타인을 해칠 욕구가 없듯이 타인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들은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53] 아이 그 자체는 어른의 무의식이며 원초적 자연 현상이며 유아적 전도 현상은 원시적 생명력으로의 회귀와도 같은 것이다.[54] 이런 점에서 붉은색이 지닌 원초적인 감각은 화자로 하여금 성과 속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해체시키며, 이곳에서 '대낮의 젊은 남녀'는 도덕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아무 갈등 없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가게 된다. 국가의 탄생은 인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만들어냈지만 국가의 탄생 이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부조리를 원시성의 힘에 해결된다고 했으며 이를 철학과 윤리가 일체화된 야생의 에티카이다.[55] 원시 자연 상태는 성인이 지켜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의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원시 자연은 성숙한 세계이며, 인간들에게 생명력과 활기를 제공해 준다. 이런 점에서 시인은 당시 현실이 지닌 여러 문제를 원시적인 여러 요소를 통해 이해하며 세계에 대한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립하게 된다.

---

53) 위의 책, 89쪽. (현존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현재까지 자연 상태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민족인 카리브인들은 항상 이 정념을 더 부추기는 듯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기후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사랑은 가장 평온하며 질투에 사로잡히는 일도 매우 드물다. 위의 책, 87쪽.)

54) 신범순, 앞의 책, 63쪽.

55) 나카자와 신이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31쪽

4. '여성'을 통한 원시 자연의 평화로운 마음과 구원의 사유

미당은 여성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본질과 대하며, 불안정한 마음을 치유하게 된다. 「자화상」에서 남자들이 부재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밤이 되어도 오지 않고, 할아버지는 바다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만삭인 어머니뿐이다. 이런 점에서 화자의 가족은 여인들이 이끌어 나간다. 이들 여인들은 대추 꽃이 피고 풋살구가 열리는 계절의 주인공들이며 생명을 태동시키는 기호들이다.[56] 비록 남성이 부재하지만 이 여성들이야말로 당시 사회 속에서 생활을 이어 나가게 한다. 특히, 이런 생명의 에너지를 가진 여인들은 『화사집』 전반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우선, 『화사집』에서 여인들은 윤리나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 화자를 유혹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 여성들은 "가시내두 콩밭속으로만 작구 다라나"(「입마춤」)거나 "능구렝이같은 등어릿길로, 님은 다라나며 나를 부르며"(「대낮」) 화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이런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이미지를 지닌 여성들은 점차 구원의 이미지로 변한다.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서
머리깜어 느리여도 능금만 먹곺어서
어쩌나 … 하늬바람 울타리한 달밤에
한집웅 박아지꽃 허이여케 피었네.
머언 나무 닢닢의 솟작새며, 벌레며, 피릿소리며,
노루우는 달빛에 기인 댕기를.
山봐도 山보아도 눈물이 넘처나는
蓮順이를 어쩌나… 입술이 붉어 온다.

「가시내」

56) 윤재웅, 「『화사집』 다시 읽기1」, 196쪽.

속눈섭이 기이다란, 게집애의 年輪은
댕기 기이다란, 붉은댕기 기이다란, **瓦家千年의 銀河물구비**… 푸르게만 푸르게만 두터워갔다.

어느 바람속에서도 **부끄러운 열매처럼 부끄러운 게집애.**
靑蛇.
뽕나무에 오디개 먹은 靑蛇
천동먹음은
번갯불에 먹음은 쏘내기 먹음은
검푸른 하늘가에 草籠불달고..

고요히 吐血하고 소리없이 죽어갔다는 淑은,
유체 손톱이 아름다운 게집이었다한다.

「瓦家의 傳說」

「가시내」에서 설움이 많은 소녀 연순이가 나온다. 그러나 "산봐도 산보아도 눈물이 넘처나는 연순이"가 왜 슬퍼하는 지 이유가 없다. 단지 연순이는 입술만 붉어질 뿐이다. 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지만 시인이 지닌 여성에 대한 인식이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평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순이가 느끼는 부끄러움이 때문이다. 연순이의 부끄러움은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일지 모른다. 이 부끄러움은 시인이 현실에 갈등하고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데서 왔다. 이는 자신의 존재론적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시인은 그동안 관능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극도의 욕망을 표현했지만 평범한 여성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의 본질과 대면하게 되어 부끄러워하고 있다.

「와가의 전설」는 화자가 기와집을 보면서 소녀 "숙"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이 시에서도 "부끄러운 열매처럼 부끄러운 게집애"라며 소녀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특히, "붉은댕기 기이다란 푸르게만 푸르게만 두터워갔다."에서 소녀는 청사와 같은 대상

이다. 왜 하필 부끄러운 대상을 청사와 동일시를 했을까. 위의 시의 청사는 "천동 먹음은 번갯불에 먹음은 소내기 먹음"은 대상으로 또한 "검푸른 하늘가에 초롱불"내는 신성하고 초월적인 동물이다. 뱀은 영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에 사는 죽은 자의 영혼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며 지혜의 원천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57] 이런 신성하며 영원한 대상과 죽은 숙이를 동일시했다는 것은 시인의 부끄러움을 초월하기 위한 점이다. "瓦家千年의 銀河물구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은 자신이 지닌 한계와 시련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시인은 여성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부자유스런 상황을 극복하며 좀 더 긍정적인 자아를 찾고자 한다.

흰 무명옷 가라입고 난 마음
싸늘한 돌담에 기대어 서면
사뭇 숫스러워지는 생각, 高句麗에 사는 듯
아스럼 눈감았든 **내넋의 시골**
별 생겨나듯 도라오는 사투리

등잔불 벌서 키어 지는데…
오랫동안 나는 잘못 사렀구나
샤알 보오드레-르처럼 설ㅅ고 괴로운 서울 女子를
아조 아조 인제는 잊어버려,
(중략)
여긔는 바로 십년전 옛날
초록 저고리 입었든 금녀, 꽃각시 비녀하야 웃든 三月의
금女, 나와 둘이 있는 곳

머잖어 봄은 다시 오리니

57) 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242쪽.

금女동생을 나는 얻으리
눈섭이 검은 금女 동생
얻어선 새로 水帶洞 살리.

「水帶洞詩」 부분

비만 자꾸오고.. **燭불밖에 부흥이 우는 돌門을열고가면 江물은 또 몇천린지, 한번가선 소식없든 그 어려운 住所에서 너무슨 무지개로 네려왔느냐.** 鐘路네거리에 뿌우여니 흐터져서, 뭐라고 조잘대며 햇볓에 오는애들. **그중에도 열아홉살쯤 스무살쯤 되는애들. 그들의눈망울 속에,** 핏대에, 가슴속에 드러앉어 叟娜! 叟娜! 叟娜! **너 인제 모두다 내앞에 오는구나.**

「復活」 부분

「수대동시」은 화자가 수대동에서 금녀와 금녀의 동생을 통해 존재의 영원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화자의 고향은 "내넋의 시골"처럼 그에게 있어 근원적인 공간이다. 이곳에서 그는 "흰 무명옷 가라입고" "싸늘한 돌담에 기대어" 여러 "생각"에 잠긴다. 특히, 화자는 "샤알 보오드레 르처럼 설ㅅ고 괴로운 서울여자"를 잊어버리고자 한다. 이때 "서울여자"의 상징은 서구문화를 의미하며, 화자의 서울여자의 부정은 당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던 과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즉, 이는 존재론적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마음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가 앞으로 계속 추구되어야 마음도 여성 인물에 찾는다. 그녀는 서양여자와 달리 저고리를 입고 비녀를 꽂은 '금녀'이다. 금녀는 현재 부재한 사람이지만 화자는 십 년 전의 금녀를 생각하며 금녀의 동생을 통해 금녀와의 결합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화자와 금녀와의 영원함은 초월적인 영역으로 이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화자에게 그녀들은 미지의 존재처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자연 세계와 합일된 대상들이다. 화자는 그녀들은 통해 원시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이는 원시적인 마음과 연결되며 여기에는 합

리적인 구분이 없다.[58] 즉, 화자는 그녀들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역에 이르게 된다. 이는 어떤 영역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화자는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허물어버리며 이런 이분법의 생기기 전의 마음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는 원시적인 상황으로 시인의 성숙한 감수성의 영역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원시인의 마음을 지닌 화자는 "흰 무명옷 가라입고 난 마음"처럼 맑고 깨끗한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얻는다. 이런 점에서 이 여인들은 힘들고 지친 자아에게 구원으로 다가온다. 이런 점은 화자가 그녀들을 통해 불안정한 마음을 극복하며 어떤 시련에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으로 충만한 마음을 얻게 된다.

그런 화자는 그녀들과 "새로 수대동 살"고 싶다고 외친다. 시인은 당시 현실에서 혼란스런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 수대동에서 원시인이 구현했던 방식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대동은 '관념적 공간이며 무시간적 절대 공간으로 성역화된 공간'[59]을 넘어서 자연적이며 경이롭고 미신과 영혼이 투사된 원시 자연 상태의 공간이 된다. 이 공간은 자연과 근본적으로 연결되며 여러 불평등도 없고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며 자기 완성 가능성이 존재한다.[60] 화자에게 수대동은 원시 자연 상태처럼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고 삶과 죽음의 이원적인 경계를 통합하는 장소이다. 이런 점은 더욱 화자에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얻게 한다.

「부활」은 유나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담은 시편이다. 시적 화자인 나는 종로거리를 거닐며 죽은 유나를 생각한다. 그러나

58) 마이클 벨, 앞의 책, 9-10쪽.
59) 윤은경, 앞의 논문, 299쪽.
60) 루소, 앞의 책, 92쪽.

유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한밤중 "부흥이 우는 돌문을 열고 가"서 "한번 가선 소식없든 그 어려운 주소"의 "무지개"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화자가 유나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연속성을 보여준다.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한 곳에서 화자는 "열아홉살쯤 스무살쯤 되는애들"의 모습 속에서 유나의 환상을 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나 너 이제 모두다 내 앞에 오는구나."에서 확고한 유나의 부활은 화자에게 삶과 죽음의 이원화된 경계를 허물어버리며 어떠한 갈등도 없는 초월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어쩌면 부활은 유나의 부활을 넘어서 시인 자신의 부활일 수 있고 이 부활은 어떤 영역에도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원시인 마음의 회복이자 이는 시인의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원시인의 마음 상태 속에서 시인은 당시 사회에서 겪은 절망과 불안을 넘어 성숙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즉, 유나의 부활은 시인이게 구원을 의미하고 화자에게 원시인이 가지고 있던 평화로운 마음을 추구하게 하며 이는 시인에게 가장 본질적인 특성으로 자리한다. 원시인의 마음은 시인에게 갈등과 절망을 치유하게 하며 그는 "춤추며 뛰어 가"(「정오의 언덕에서」)듯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마음을 지니며 "뉘우치지 않는 사람"(「문」)처럼 성숙하고 견고한 내면 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인은 여성들은 통해 평화로운 내면세계를 얻고 그녀들은 당시 현실 속에서 시련과 고통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5. 결 론

이 논문의 목적은『화사집』에 나타난 원시성의 표출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화사집』에 나타난 강렬한 피의

이미지, 육체적이며 에로스적인 내용, 동물의 상상력 등은 원초적인 생명력을 보여준다. 그러나『화사집』이후의 시집에서는 더 이상 강렬하고 원초적인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고 전통사상 혹은 동양 사상을 펼치게 된다. 하지만 서정주 시 세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원성과 생명 탐구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화사집』의 원초적인 것들이 지닌 이미지 혹은 상징들은 동양 사상과 이질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화사집』을 지배하고 있는 원초적인 상상력은 이후 동양사상 혹은 전통주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화사집』에 나타난 원초적인 상상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화사집』의 원시성은 시인이 여러 원초적인 이미지 혹은 상징들을 중심으로 당시 현실의 부조리에 대항해 더 오래된 사회로 갈수록 현실이 지닌 문제점을 수긍하게 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정립하게 되는 과정을 뜻한다.

우선,『화사집』에는 배암, 산되야지, 노루, 부흥이, 수캐, 개구리 등 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원시 자연에서 인간과 동물은 경계가 없고, 이런 점은 미당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추구하게 했다.「화사」의 뱀은 아름다움과 징그러움의 양면성을 지닌다. 이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의미하며 그는 이를 부정하며 뱀에게 돌팔매질까지 한다. 이렇게 화자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대상을 거부해보지만 오히려 그는 뱀과 하나가 된다. 이런 동일시는 원시 자연 상태처럼 타인을 해치거나 타인을 요구하지 않고 남과의 경계나 관념을 없게 한다. 뱀과 동일시를 통해 원시 자연의 생명력을 화자가 경험하게 된다. 그는 짧은 순간이지만 자신이 지닌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 결과 화자에게 뱀은 아름다운 빛의 대상이 된다.

『화사집』에는 붉은색이 많이 나온다. 이때, 붉은색은 원초적인 감각으로 사유하는 자아와 연결되며 순수한 자아를 만든다. 순수한 자아를 간직한 화자는 윤리나 도덕성 문제성도 초월하게 한다. 예를 들어,「문둥이」에서 문둥이가 아픈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애기를 먹은 행위이다. 그때 '꽃처럼 붉은 울음'을 울게 된다. 이 붉은색은 화자에게 원시적인 상황을 만들며 순수한 자아를 형성하게 한다. 원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선악개념을 벗어난 존재들이고 그렇기에 평화롭고 무사태평하다. 이런 점에서 문둥이가 아이 먹는 행위는 금기시되는 행동이지만 그의 붉은색 울음으로 금기가 초월된다. 그 결과 문둥이가 아이 먹는 상황은 도덕적 문제성을 거론하지 않게 된다.

『화사집』에는 여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 시집에는 유혹하는 여인들도 있지만 구원의 여인들도 등장한다. 특히, 미당은 여인들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내면을 치유하며 긍정적인 자아를 찾게 된다. 「수대동시」에서 미당은 금녀와 금녀의 동생을 통해 영원성을 꿈꾼다. 그녀들은 자연세계와 합일된 존재들이다. 화자는 현재 부재한 금녀와 현재 존재하는 금녀의 동생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게 된다. 이는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원시 자연의 마음의 상태이다. 그 결과 화자의 마음 상태는 "흰 무명옷 가라입고 난 마음"처럼 맑고 평화롭다. 특히, '수대동'에서 화자는 금녀와 금녀의 동생을 통해 평안하고 자유로운 원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다. 이처럼 여인들은 힘들고 지친 자아에게 구원의 대상으로 그 결과 시인은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얻게 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미당 시전집1』, 민음사, 1994.

2. 논문

강혜경,「서정주 시의 어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2000
권희철,「서정주 시의 에로티시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04
김수이,「서정주 시의 변천 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1997.
김미옥,「미당 서정주 시의 색채 이미지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2012
김정수,「이상과 백석 문학에 나타난 아동미학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 2010
남기혁,「서정주의 동양인식과 친일의 논리」,『국제어문』37호, 2006
류동현,「『화사집』의 심층심리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00
박근배,「하이데거의 공포와 불안 개념에 대한 연구 : 자기 존재 상실에서 자기 존재 확인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2012.
박민영,「뱀과 달의 상상력-서정주 시「화사」와「동천」연구」,『한국시학연구』35호, 2012.12
박성현,「화사집에 나타난 도시담론 연구」,『겨레어문학』38호, 2007
박혜숙,「백석과 서정주의 서술시 비교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2003.
오용기,「서정주 시의 한-『화사집』을 중심으로」,『국어국문』35호, 2000.
윤은경,「서정주 초기시의 낭만성과 도의 상상력-『화사집』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45호, 2011
윤재웅,「서정주『화사집』의 문체 혼종 양상에 대하여」,『한국문학연구』44호, 2013.6
_____,『화사집』자세히 읽기1,『한국문학연구』22호, 2000. 8.
이남호,『예술가의 자아인식-『화사집』시절의 미당』,『한국시학연구』28호, 2010.8
이희중,「『화사집』의 다중진술 연구」,『한국언어문학』50호, 50호, 2003.5
전미정,「한국 현대시의 에로티시즘 연구: 서정주, 오장환, 송욱, 전봉건의 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1999.
조규갑,「이상문학의 원시주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2008.
주세훈,「서정주 시의 감탄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1994
최재란, 유숙희,「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에 관한 연구」,『과학 논집』, 1995.
최현식,「서정주와 영원성의 시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2003.

3. 단행본

괴테, 장희창 역,『색채론』, 민음사, 2003.

김재홍 외, 『미당연구』, 민음사, 1994.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 『곰에서 왕으로』, 동아시아, 2003.
_____,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2003
_____, 『대치성의 인류학』, 동아시아 2003.
들뢰즈, 하태완 역, 『감각의 논리』, 민음사, 1995.
루소, 주경복 외 역. 『인간 불평등의 기원』, 책세상, 2003.
마이클 벨, 김성곤 역, 『원시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바슐라르, 정영란역, 『공기와 꿈』, 민음사, 1995.
신범순, 『바다의 치맛자락』, 문학동네, 2006,
알베르트 수스만, 서영숙 역, 『영혼을 깨우는 12가지 감각』, 2007, 섬돌
윤재웅, 『미당 서정주』, 태학사, 1988.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강주헌 역, 『우리는 모두 식인종이다』, 아르테, 2015
파버・비렌 지음, 김화중 역, 『색채 심리』, 동국출판사, 1996,
하랄드 브램, 이재만 역, 『색의 힘』, 이화여대 색채디자인연구소, 2010
한전숙, 『감각과 신체』, 민음사, 1984

(**투고일**: 2017. 6. 30 **심사완료일**: 2017. 8. 15 **게재확정일**: 2017. 8. 16)

이름: 양소영
소속: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Abstract]

The Study on Primitive Imagination in 『Hwasa-jib』

Yang, So-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Hwasa-jib』 how primitive is deployed through the animals, color, women shown in the house 『Hwasa-jib』 to see whether or not.

In particular, the snake is dual nature of splash 「hawsa」 a being. This is primitive humans and animals as nature means no essential difference. This is why the speaker is a rather negative hits, and identify and snakes form the same feelings and the speaker. Snakes are beautiful lights are subject to the result. This is a poet and he understand the mentality and desire for others to the inner world of are established.

It shapes the vitality and images are numerous red splash in 『Hwasa-jib』 and make primitive sense of self to a poet. A leper create a situation of eating his baby for playback. And sick red flower which is putting a proposal for crying for myself crying. At this time, primitive sense of self to the red color is the speaker of creating.

Midang through the women, in particular, his exhausted internal healing. Through the speaker is off-limits to women that are currently members and off-limits to women's brother in both 「Sudaedongsi」 were seeking eternal existence. This is ontological associated with the situation of longer period of time. They are the speaker to that objective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completion without separation of implementation. Which transcends life and death, completion and free a genuine state of mind to any situation.

Key words: Animals, primitive life, primal sense, women, salvation